

환자경험평가 95.31점으로 1등급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앞줄 왼쪽)가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질환의 상태와 향후 치료 방향을 설명하는 모습.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차 환자경험평가에서 7개 평가영역 평균 95.31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5위를 기

록했으며, 국내 빅5 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국민 참여형 평가다.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329개소 등 총 376개 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한 만 19세 이상 환자 13만 435명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 지지, 환자안전과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7개 영역 23개 항목을 평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전반적 평가 97.41점 ▲환자안전과 병원환경 96.80점 ▲간호사 영역 96.78점 등 7개 영역 모두에서 빅5 병

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의사를 만나 이야기할 기회 13.40점 ▲치료 결정 과정 참여 기회 11.08점 상승해 의료진과의 소통과 치료 참여 경험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스위크 평가 '친환경 병원' 최고 등급



서울아산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계 친환경 병원(World's Greenest Hospitals 2026)'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나뭇잎 5개'를 받았다. 또한 세계 24개 병원에게만 주어지는 '지속가능 인프라 우수병원(Sustainable Infrastructure)'에도 함께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병원 운영 전반에서 추진해 온 ESG 활동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뉴스위크는 올해 처음으로 전 세계 6,0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과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해 36개국 250개 병원을 우수 병원으로 선정했다.

엔비디아·라이브엑스 AI와 피지컬 AI 협력 논의



엔비디아·라이브엑스 AI 방문단과 서울아산병원 경영진.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엔비디아와 고객경험 자동화 솔루션 기업 라이브엑스 AI 방문단이 8월 7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피지컬 AI를 활용한 환자경험 혁신 방안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병원 내 다양한 환자 접점에 피지컬 AI를 적용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자 안내와 상담 등 고객경험 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자동화하고,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현장 경험과 기업들의 AI 기술 역량을 결합해 환자 중심의 미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